

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

2022. 12.

관계기관 합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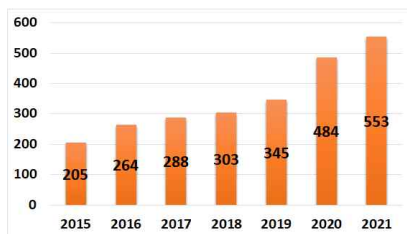
목 차

I. 추진배경	1
II. 국내 핀테크 산업 현황	2
III. 지원 활성화 방안	4
1. 투자·정책금융 지원 강화	5
2.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·성장 지원체계 고도화	8
3. 핀테크 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	11
IV. 향후 계획	12
[참고] 「핀테크 지원사업」 개요	1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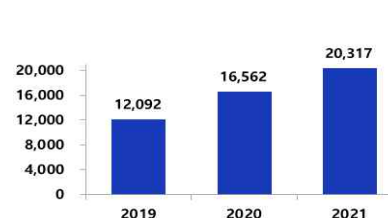
I. 추진배경

- 그간 정부는 혁신적인 서비스 출현을 통한 소비자 편의 증진과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금융혁신 정책 추진
 - **(금융규제 샌드박스)**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규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「금융혁신지원특별법」 도입('19.4월)
 - ※ '22.11월말까지 총 232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 → 이 중 151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
 - **(핀테크혁신펀드)** 은행권과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핀테크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혁신펀드를 조성·운영('19.12월~)
 - ※ 4년간('20~'23) 5,000억원 조성·투자 목표 → '22.11월말 현재 총 3,216억원을 조성하여 96개 핀테크기업에 2,455억원 투자 완료
 - **(오픈뱅킹·마이데이터)** 오픈뱅킹('19.12월)과 마이데이터('21.1월)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핀테크 新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인프라 구축
 - ※ (오픈뱅킹) 가입자수 1.5억명(누적), 등록계좌수 3.3억계좌(누적)('22.11월말)
 - (마이데이터) 가입자수 6,253만명(누적), 총 1,361억건의 데이터 전송('22.11월말)
 - **(핀테크 지원예산)** 핀테크 기업의 샌드박스 참여 지원, 입주 공간 제공, 인력양성 등 예산 편성·집행* [참고]
 - * ('19년) 100억원 → ('20년) 145억원 → ('21년) 166억원 → ('22.11월) 143억원
- 핀테크 산업 저변 확대로 핀테크 기업(19년 : 345개→ '21년 : 553개) 및 관련 종사자(12,092명 → 20,317명)가 빠르게 증가

< 핀테크 기업 증가 추이 >



< 핀테크 기업 종사자수 >



⇒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핀테크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추진

II. 국내 핀테크 산업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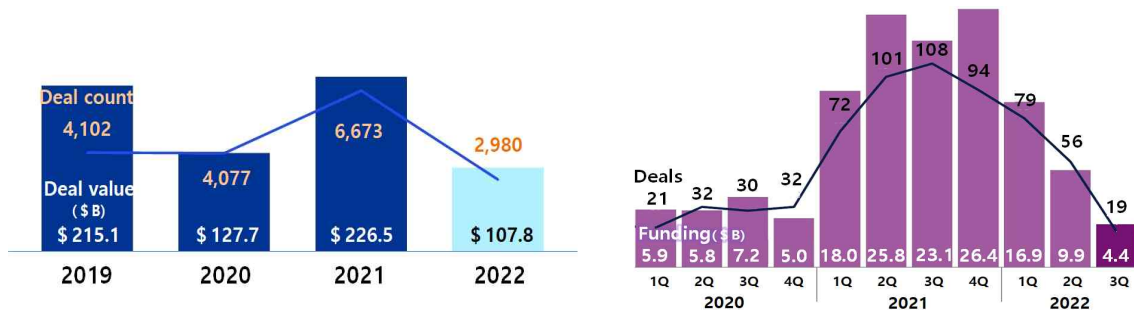
1. 핀테크 분야 금융지원 필요성 증대

- 미국^發 금리상승 기조*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민간 모험자본이 보수화되고 투자규모도 감소하는 측면

* 국내 기준금리 상승 추이 : ('21.7월) 0.5% → ('22.11월) 3.25%

- 핀테크 산업은 서비스 출시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투입비용이 크므로 자금지원 경색은 핀테크산업 전반의 위축 초래 우려

< 연도별 핀테크 투자실적(KPMG,'22) > < 분기별 대규모(Mega-round) 투자실적(CBI,'22) >



※ '22년 전세계 핀테크분야 투자금액은 약 1,078억달러 수준으로, 전년대비 52.4% 감소(KPMG)

- 핀테크 업계 조사 결과,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사항으로 '기술 개발·이전을 위한 자금지원'이 64.8%로 가장 높은 순위

⇒ 기존 핀테크 전용 투자펀드, 정책자금 등을 활용하여 핀테크 산업의 투자자금 공급 부족을 보완할 필요

2. 핀테크 기업의 성장동력 둔화

- 최근 혁신금융서비스의 핀테크 기업 지정건수와 지정비중은 감소 추세¹⁾로서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 출시²⁾도 제한적

* 1) '19년 46건(59.7%) → '20년 15건(25.9%) → '21년 10건(20%) → '22년(~11월) 9건(19.1%)

2)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 73개사중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은 48개사

< 연도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현황 >

구분		2019	2020	2021	2022 (11월말 기준)
지정 기업	핀테크 기업	46 (59.7%)	15 (25.9%)	10 (20%)	9 (19.1%)
	대형	1	-	1	2
	금융회사 등*	31 (40.3%)	43 (74.1%)	40 (80%)	38 (80.9%)
	합계	77	58	50	47

* 금융회사, 금융유관기관, 대기업 포함

- 핀테크 기업은 기술개발 여건(평균 10명 이내의 개발인력)이 취약하고, 서비스 준비시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력과 노하우 부족

⇒ 핀테크 기업의 창업·서비스 출시·성장 등 단계별로 내실있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핀테크 지원센터 기능을 고도화

3.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미흡

- 핀테크 기업 중 해외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2.7%*에 불과하며, 현지 정보부족 및 국가별 상이한 규제체계 등으로 해외 진출이 어려운 상황

■ 2021년 핀테크산업 현황조사(한국핀테크지원센터)
 - 해외 진출시 주요 애로사항은 ①해외시장 정보 부족(46.9%), ②현지 규제·정책 진입장벽(37.5%) 등으로 분석

- 내수시장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할 때 해외시장은 잠재력 있는 국내 핀테크 기업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

- 국내 유니콘기업 23개사 중 핀테크 분야 기업은 3개사(13%, 가상자산 관련 2개사 포함)로 해외 대비 낮은 비중

* (해외) 유니콘 1,168개사 중 핀테크 분야 244개사(21%)

⇒ 핀테크 기업의 신규시장 확보 위한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

III. 지원 활성화 방안

추진방향

1

투자·정책금융 지원 강화

- 1 「핀테크 혁신펀드」 규모 확대
- 2 정책금융기관 지원 확대
- 3 핀테크 분야 통합지원체계 구축

2

핀테크 스타트업 창업·성장 지원체계 고도화

- 1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
- 2 보육 및 네트워킹 지원
- 3 인력 양성 및 일자리 매칭

3

핀테크 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

- 1 해외진출 지원 전략 및 체계 정비
- 2 해외 투자자 및 인력 Pool 제공
- 3 해외진출 관련 지원정보 집약 및 컨설팅

1

투자 · 정책금융 지원 강화

◇ 핀테크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투자여력 및 지원체계 강화

1. 「핀테크 혁신펀드」 규모 확대

□ (현행) 금융권 자금을 바탕으로 핀테크 혁신펀드(성장금융)를 조성하여 4년간('20~'23) 5,000억원¹⁾을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중²⁾

* 1) 은행 등 금융권 0.15조원 + 민간 투자자금 0.35조원 → 4년간 0.5조원 투자

2) '22.10월말 현재 3,216억원 조성, 94개 기업에 총 2,425억원 투자 완료

○ 다만, 초기단계에 비해 사업화단계 핀테크 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 위축 우려가 큰 상황*

* 금융권·투자기관(예 : 벤처캐피탈)은 초기단계(비즈니스 모델 구축단계) 투자는 유지, 사업화단계 투자는 경제 불확실성 등 고려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

□ (개선) 연속적인 투자지원을 위해 4년간('20~'23) 0.5조원에 이어 향후 4년간('24~'27) 0.5조원 추가 결성 → 총 1조원 확충

① 간헐적으로 운영된 초기단계 핀테크기업 투자펀드 상설화

② 비즈니스 모델의 본격적인 사업확장을 준비하는 사업화단계 중점 투자펀드 신설

③ 금융권 핀테크랩(초기기업 투자)과 디지털 전략펀드*(성장기업 투자) 간 징검다리로서 연계투자를 확대하여 핀테크 생태계 보완

* 혁신 핀테크 기업 육성 위해 금융그룹에서 핀테크랩·디지털 전략펀드 운영

운용방식	중점 투자대상	
	현행('20~'23)	개선('24~'27)
블라인드펀드	핀테크 기업 전체 대상	① 초기단계 기업
	* 초기단계 투자펀드 비정기적 운용	② 사업화단계 기업
프로젝트펀드	금융권 핀테크랩 및 유관기관과 함께 투자대상을 발굴	현행 + 금융권 전략펀드 등 ③ 민간펀드와의 연계 확대

2. 정책금융기관 지원 확대

- (현황) 핀테크 기업에도 정책금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*
안정적 지원체계는 갖춰지지 못한 측면

* 정책금융 지원 실적 : '19년이후 약 4년간 대출 4,908억원, 보증 859억원 지원
- 대출 : ('19년) 1,125 → ('20) 1,742 → ('21) 914 → ('22.1~3Q) 1,140
- 보증 : ('19년) 202 → ('20) 216 → ('21) 312 → ('22.1~3Q) 129

- 특화 프로그램보다는 일반 프로그램 지원이 대부분*으로, 연도별
지원실적 변동이 크고 핀테크 맞춤형 지원에도 한계

* 특화상품은 신보의 핀테크 기업 지원 프로그램(연간 120억원)이 유일

- (개선) 핀테크 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추진

- 특화상품 등 맞춤형 지원 확대 → '23년부터 **연간 2,000억원
이상의 대출·보증공급** ※ 핀테크 산업 확대시 목표금액 상향
- “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”으로 정의한 모든 핀테크 기업 지원
 - 사업화단계(혁신펀드) 피투자기업에 대한 연계대출 추진(산·기은)

< 정책금융기관의 핀테크 산업 지원계획 >

구분	지원 프로그램	중점 지원대상	핀테크 지원규모(안)	
			현행	개선(안)
산업은행	(일반) 혁신성장분야 기업 대출 등	중소·중견	배정액 없음	연간 1,000억 ↑
기업은행	(일반) 대한민국 대전환 특별대출 등 (일반) 벤처대출·소액P담보대출 신설	중소	배정액 없음	연간 700억 ↑
신용보증 기금	(특화) 핀테크 스타트업 특화보증 (일반) 신성장동력산업 보증 등	창업·초기	연간 120억	연간 200억
		중소	배정액 없음	연간 100억 ↑

3. 핀테크 분야 통합지원체계 구축

□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는 다수 관계기관*이 참여하는 「핀테크 지원협의체」를 운영하여 체계적·효과적인 지원 추진

* 핀테크지원센터, 핀테크산업협회, 정책금융기관, 유관기관, 금융회사 등

○ (통합지원체계 마련)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·비금융 지원 프로그램*을 협의체를 통해 조율

* (금융) 투자·대출·보증 등, (비금융) 컨설팅, 보육(Accelerating), 해외진출 지원 등

- 공용DB를 구축¹⁾하여 기업의 성장 히스토리와 지원이력을 파악하고, 반기 1회이상 핀테크 특화 IR²⁾(투자설명회) 개최

* 1) 핀테크 편람(21년, 553개)을 기반으로 DB화할 수 있는 정보부터 단계적 구축

2) (산은) 핀테크 스페셜 넥스트라운드, (신보) U-CONNECT 핀테크 라운드 등

○ (K-Fintech 30 선정) 핀테크 산업에서 미래의 금융혁신을 주도할 대표기업 30개사를 선정¹⁾하고 성장 지원²⁾

* 1) 협의체 추천 및 신청을 통해 모집하고, 'K-Fintech 30 선정위원회'에서 선발

2) 「핀테크 혁신펀드」 및 금융권의 디지털 전략펀드와의 투자연계, 유관기관 지원 프로그램에서 가점 부여, 데모데이 및 네트워킹시 우선선발 등 지원

< 「핀테크 지원협의체」 운영(안) >

■ 구성(14개 기관)

- (정책금융기관) 산업은행, 기업은행, 신용보증기금
- (유관기관) 핀테크지원센터, 핀테크산업협회, 성장금융, 디캠프
- (핀테크랩) KB, NH, 신한, 하나, 우리, DGB, 한화생명

■ 논의 일정

- 분기당 1회(정기), 현안발생 시(수시)

■ 논의 방향

- 협의체 조율을 통해 중복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, 협조가 가능한 부분은 협업을 통해 시너지 창출

※ (추진과제) 지원계획 및 현황공유(예 : 공용DB 구축), 우수 핀테크 기업 선정(예 : K-Fintech 30, 핀테크 올스타 데모데이), 지원사업 관련 협업 등

◇ 핀테크 분야 창업 활성화 기반을 확대하고, 창업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원체계 고도화

1.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

① (핀테크 상담창구 운영 내실화)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·경영 관련 정보제공과 애로 해결을 위해 상담역량 확충

*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포함한 핀테크 전반에 관한 문의사항에 대해 온라인 상담 또는 예약을 통한 대면상담 진행(핀테크지원센터 내 상담인력 2명)

-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상담결과에 대한 유기적인 후속조치가 가능하도록 추진
- 현재 운영 중인 멘토 Pool(87명)을 확대하여, 서비스 유형, 기술 분야, 성장단계 등에 따라 멘토링 제공

② (핀테크 컨설팅 내실화) 맞춤형 종합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「전문가 지원단」을 운영하고 「전담 책임자」도 지정

- 핀테크 분야 「전문가 지원단」을 구성*하여, 신청기업이 구상 중인 서비스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

* 법률·회계 전문가, 유관기관, 민간전문가, 연구소, 업계 등으로 구성

-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서는 사무공간 등을 지원·연계하고, 규제 개선 필요시 샌드박스 지정을 위한 컨설팅* 제공

* 서비스의 혁신성·사업성 컨설팅, 특례 적용 대상 되는 금융관련 규제 확인 등

- 「기업별 전담 책임자」를 지정하여 핀테크 스타트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여건 조성

- 핀테크 스타트업의 수요에 맞는 전문가를 매칭하고, 샌드박스 절차 진행 등 소 과정의 관리자(코디네이터) 역할 수행

* 책임자는 신청기업의 서비스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, 전문가 Pool의 자문 과정을 거쳐 기업이 규제특례 신청서를 원활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

③ **(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컨설팅 연계)**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전까지 이뤄졌던 컨설팅을 지정 이후 서비스 출시까지로 확대

-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이슈(법률, 특허, 회계, 인증 등)에 대해 컨설팅 제공

④ **(찾아가는 설명회 재개)**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*

* 코로나19로 인해 '20년 이후 중단

- 핀테크 스타트업이 주로 위치한 여의도, 을지로, 강남, 부산, 광주 등 주요 권역별로 개최 추진
- 금융감독원, 핀테크지원센터,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여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답변

2. 보육 및 네트워킹 지원

① **(맞춤형 창업·안착지원)** 예비창업자부터 3년 內 초기창업기업, 이후 성장단계의 기업까지 성장지원 체계 마련

- 창업 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* 참여, 보안점검, 금융 클라우드 등 지원

* 서비스 출시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, 지정대리인, 위탁테스트 비용지원 및 아이디어의 사업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D-테스트베드 제공

- 他부처·지자체에서 운영중인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사업* 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

< 타부처 등 지원사업 >

- 예비창업 단계(창업 前) : 중기부 예비창업패키지 등
- 사업화 단계(창업 後) : 과기부 블록체인 지원사업 및 R&D 사업, 산업부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등

- 금융위 사업과 他부처·지자체 사업 동시 참여시, 중복수혜 없이 필요한 지원*을 받을 수 있도록 他기관과 협조체계 구축

* 사업화자금 등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므로, 금융위 사업으로 자금지원시 타부처에서는 멘토링, 입주공간 등 다른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체계마련

② (보육지원 확대) 초기 창업기업(예: 예비창업자, 창업후 3년내 기업)에 핀테크 특화 보육프로그램인 「핀테크 큐브*」 참여 기회 확대

* 교육, 멘토링, 데모데이, 네트워킹 등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및 국내·외 진출을 지원하는 보육공간으로 프론트원에 위치

- 가산점 부여 등으로 초기기업 지원 비율을 70% 이상으로 확대*

* '22.11월, 입주기업 24개사 중 14개사가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(약 58%)

③ (창업기업 발굴) 대학 창업지원센터와 협력하고 금융권 공모전 연계를 통해 우수한 핀테크 창업기업 발굴·육성 추진

* 핀테크에 관심이 있는 창업지원센터와 우선적으로 협력하고, 금융권 공모전에서 수상한 팀을 대상으로 예비창업자 발굴

3. 인력 양성 및 일자리 매칭

① (인력 양성) 국내 주요 대학*과 연계한 핀테크 창업과정 확대

* 현재 전북대, 동아대, 서경대, 서울과학종합대학원과 협력중

- 핀테크 과목을 신설하고, 해당 과목 수료자가 창업하거나 핀테크 분야 취업시 센터 지원사업*과 연계하여 후속 지원

* 예비창업패키지 지원, 멘토링, 핀테크 큐브 제공 등

② (일자리 매칭) 현재 운영중인 핀테크 일자리 매칭과 인턴십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에 우선 배정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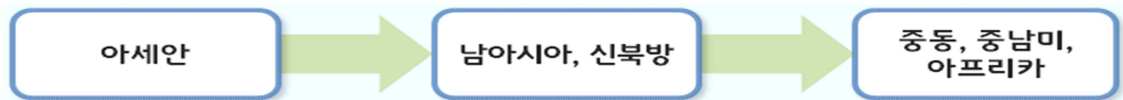
- 「일자리 매칭존¹⁾」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에 필요한 개발자, 기획자 등 인력 주선과 핀테크 인턴십²⁾을 통한 우수 인재 매칭

* 1) 핀테크 기업 인력 매칭·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프론트원에 위치
2) 60명 선발, 교육 후 핀테크 기업과 매칭된 25명에게 3개월간 인건비 지원

- ◇ 핀테크 기업이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시장으로 진출하여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

1. 해외진출 지원 전략 및 체계 정비

- ① (추진전략) 유망한 시장 중의 하나인 아세안 국가를 시작으로 남아시아, 신북방 국가 등으로 진출지역 확대



- 핀테크 서비스별로 현지 시장상황, 국내 서비스 경쟁력, 현지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진출 가능성 평가

< 서비스별 해외지역 진출 가능성 >

구분		아세안	남아시아	신북방	MENA	아프리카	중남미	북미	유럽
서비스	지급결제 및 송금	●	●	●	●	●	◐	◐	◐
	은행	●	◐	●	◐	◐	◐	◐	◐
	비은행	●	◐	◐	◐	◐	◐	◐	◐
	증권	●	●	◐	●	○	◐	◐	◐
	보험	●	◐	◐	◐	○	◐	◐	◐

* 매우 우수●, 우수●, 중립◐, 나쁨◐, 매우 나쁨○

- ② (추진과제) 핀테크 기업의 효과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정보제공부터 해외진출 거점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

- (현지 정보제공) 국가별 정책·시장동향 조사, 경쟁력 평가를 통해 「해외진출 핀테크 서비스 맵」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
- 권역별로 핀테크 관련 시장규모, 파트너 후보, 경쟁사 등을 조사하여 유망 핀테크 서비스 진출전략을 마련

- **(현지기업 협업)** 대상국가에 소재하고 기술 역량을 보유한 현지 기업·기관과 파트너쉽을 확보하여 공동으로 핀테크 서비스 현지화
 - * (예시) 베트남에 진출한 금융사, 액셀러레이터인 VSV(Vietnam Silicon Valley)와 협력
- **(해외진출 거점 지원)** 해외 핀테크 랩, K-Startup 센터 등*을 통해 유망 핀테크 기업 선정·네트워킹 주선 등 해외 거점 지원
 - * 신한(베트남, 인도네시아), KB(싱가포르), 우리(베트남) 등 금융사 해외 핀테크 랩, K-Startup 센터(미국, 싱가포르 등)를 통해 현지 보육공간 활용

2. 해외 투자자 및 인력 Pool 제공

-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 투자자 및 인력 정보제공 확대
 - 해외 벤처캐피탈(Venture Capital)·액셀러레이터(Accelerator) 정보와 글로벌 펀드 등 한국 의무 투자비율*이 있는 펀드 정보를 제공하여 해외진출과 투자를 연계
 - * 약정액 이상을 한국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운영지침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음
 - 한국어에 능통한 유학생 등 인력 Pool 정보제공과 매칭지원

- 핀테크 산업현황 조사('21년) 결과 해외진출 시 주요 애로사항 :
 - ① 시장 정보 부족(46.9%) ② 현지 규제, 정책 등에 의한 진입 장벽(37.5%), ③ 해외 바이어/수요 발굴, 해외 제휴/합작 파트너사 발굴(각 32.8%) 등

3. 해외진출 관련 지원정보 집약 및 컨설팅

- 초기 진출전략 수립부터 서비스 고도화까지 체계적인 정보제공
 - 핀테크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해외진출 정보와 지원사업 등을 집적하여 추천·매칭 지원

< 국내 해외진출 지원 주요사업 현황 >

구분	정부	지방자치단체	공공기관 등	계	비율(%)
사업화 지원	13	3	9	25	50
시설·공간·보육지원	-	3	1	4	8
멘토링·컨설팅 지원	1	2	9	12	24
행사·네트워킹 지원 등	3	1	5	9	18

IV. 향후 계획

-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진출 기초라는 대내외 여건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행가능한 분야부터 신속히 추진

< 과제별 추진일정 >

분 야	지원방안	기관	시기
① 투자·정책금융 지원 강화	❶ 「핀테크 혁신펀드」 규모 확대	성장금융	'24.1Q~
	❷ 정책금융기관 지원 확대	산은 기은 신보	'23.1Q~
	❸ 핀테크 분야 통합지원체계 마련	지원센터 유관기관	
②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·성장 지원체계 고도화	❶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	금융위 금감원 지원센터	'23.1Q~
	❷ 보육 및 네트워킹 지원	지원센터	즉시 추진
	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매칭	지원센터	'23.2Q~
③ 핀테크 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	❶ 해외진출 지원 전략 및 체계 정비	지원센터	'23.1Q~
	❷ 해외 투자자 및 인력 Pool 제공	지원센터	'23.2Q~
	❸ 해외진출 관련 지원정보 집약 및 컨설팅	지원센터	

1. 예산 개요

□ ('22년 규모) 145억 3,200만원

□ (법령상 근거)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 제26조에서 정부가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

* (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6조) ①정부는 혁신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운영·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2. 사업 내용

① (디지털 금융혁신 지원 : 86억원) 샌드박스 등 테스트베드 참여 지원*, D-테스트베드, 보안지원, 클라우드 이용 지원 등

* 혁신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도록 비용을 1.2억원 한도 내 최대 75% 지원

② (핀테크기업 육성지원 : 12.6억원) 핀테크 스타트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멘토링, 해외진출 지원 및 입주공간 제공* 등

* 마포 프론트원에 사무공간을 제공, 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

③ (핀테크 기반구축 : 16.4억원) 핀테크 산업 기반구축을 위해 국제협력 강화 및 국내외 조사연구, 대국민 체험행사*(박람회) 등

*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로 핀테크 정책 설명회, 주제별 세미나, 핀테크 서비스 전시, IR경진대회, 투자상담회 등 진행

④ (핀테크 인력양성 : 18.5억원) 핀테크 분야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특화교육 운영, 교재 및 온라인 교육플랫폼 개발, 일자리 매칭지원* 등 제공

* 프론트원 內 일자리 매칭존에서 구인·구직 상담